

도시의 카니발에

던지는 냉소

기묘한 홀림

혹은 약속된 홀림

강영숙

숙

《날마다 축제》낸 소설가 강영숙

공황폐쇄조치가 내려진 도시에도 날마다 축제는 벌어진다. 밴드의 단조로운 연주, 늙은 코미디언의 사회, 후끈한 더위 속에서도 사람들은 흔쾌히 춤을 춘다.

날마다 축제가 벌어지는 도시는 과연 유토피아인가? 천만의 말씀, 푸줏간의 고깃덩이가 아닌, 사람들의 몸뚱어리를 탐하며 카니발을 즐긴 것은 도시일 뿐이다. 위선적인 도시의 가면을 벗겨낸 강영숙의 신작 소설집 《날마다 축제》는 도시의 폭력 속에서 불모不毛의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보를 냉정하게 추적한다.

“《날마다 축제》는 제 나름의 도시탐구를 담은 소설집입니다. 전작前作 소설집 《흔들리다》가 개인과 자아에 관심을 집중했다면, 《날마다 축제》는 도시와 사회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렇다고 철저하게 도시에만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도시와 개인 간의 적절한 밸런스를 갖고자 했지요.”

강영숙의 이번 소설집은 전작前作과 비교, 몇 가지 분명한 대적점을 갖는다. 서

사의 골격이 꺾어진 것이 그 하나며, 소설 속의 메타포가 선명해졌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경도되지 않고 뭉툭뭉툭 이미지를 끌어내는 유연함까지 갖추고 있는데, 평단이 그의 소설에 관심을 할애하는 이유기도 하다.

“소설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습니 다. 작가에게 그만큼 치명적인 말은 없지요. 이번 소설집에 묶인 소설을 쓰면서는 과도한 상징을 배제하고, 안정적인 구도를 갖고자 했지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에 무리한 해석을 부여하려는 독자들 도 있는데, 암시적 정황을 드러내는 단절된 이미지 일 뿐입니다. 평론가 김형중 씨가 ‘중심서사를 위해

이미지들이 은유나 상징이 되기를 포기한다'고 해설에 썼는데, 정확한 지적입니다.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기술記述은 체질상 맞지 않아요. 그림을, 특히 샤갈의 그림을 좋아하는데, 이미지로 현실의 기운을 고스란히 드러낼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축제》에 실린 작품 속에는 환영의 이미지가 곧잘 등장한다. <시티투어버스>에서 '나'는 “무섭게 살이 찌고 흰 뿔이 달린 들소들이 대평원의 한 지점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며, <봄밤>에서 '나'는 “한강물 위로 불쑥 솟구쳐 오르는 고래”를 본다. <빙고의 계절>에서 '선애'는 “기류를 따라 하늘로 솟구쳐 올라갔다가 빗줄기를 타고 떨어지는 미꾸라지”를 잡으려 양팔을 뻗기까지 한다. 이런 환영들은 실제 존재하는 것들인 양, 소설 속에서 현실의 한 자리를 분명하게 꿰어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환영에 맞선 실제 이미지다. <봄밤>에서 트럭에 가득 실린 '개들', <태국풍의 상아색 쉼들>에서 트럭 안에 갇혀 있는 '분홍 돼지들', <연인들>에서 반투명 비닐가방 속에 든 '죽은 물고기' 등은 분명한 실제임에도 환영의 옷을 슬며시 걸쳐 입는다. 소설 읽기의 재미를 배가하는 지점인데, 실제와 환영의 경계가 가뭇없이 사라진 공간 속에서 마음을 놓친 독자라면 여지없이 길을 잃을 터, 기묘한 홀림 속에서 출구를 찾듯 소설의 마지막에 이르면 독자는 작품의 선풍적인 분위기에 홀릭되고 만다. 그로테스크한 도시를 떠나보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인물의 심중 혼란은 고스란히 독자들에게로 전이된다.

“아버지가 자녀들을 한강에 차례대로 던져버린 사건을 들었을 때, 차마 믿을 수가 없었죠. 다른 지점 다른 각도에서 사건과 사물들은 다르게 느껴집니다. 불온한 도시 속에서 만나는 분홍 돼지나, 죽은 물고기 등은 환영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들소와 고래, 죽은 물고기 등은 원시성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한 이미지입니다. 원시성과 대척하고 있는 것이 문명인데, 문명사회로 치달을수록 원시성은 죽기 마련이죠. 원시로 회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이미지를 통해 문명사회의 역기능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소설 속에서 도시에 대한 묘사는 묘지에 가깝다. “수조 속에 담긴 모형도시처럼 현실감이 없어 보이는 새벽 거리”, “이글거리는 햇빛과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후끈한 지열”에 갇힌 소설 속 인물들은 “애초에 이 도시에 온 것부터가 잘못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뇌까리는가 하면, “아침이 오기 전에 도시를 떠나자”고 합의하기도 한다. <시티투어버스>에서 '나'는 “그에게서는 시큼한 땀냄새가 났다. 그 땀냄새는 사람을 고독하게 만들었다. R을 생각하면 지금도 나는 환취幻臭에 시달린다”고 진술한다. 도시의 축제도 마찬가지로, 그 땀내 나는 도시는 것처럼 인간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시큼한 땀냄새란 도시 속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풍겨내는 시취尸臭에 다름 아니다.

“매머드한 도시 속에서 인간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장에 들어갈 때 대접받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출구도 확인 못한 채 사람들에게 떼밀려 몸을 옮기는 일이 예사죠. 불이라도 나게 된다면, 운 좋은 몇 명만이 살아남을 뿐이죠. 이런 것이 도시의 컨셉입니다. 도시의 정치하지 못한 시스템, 비인간적인 시스템에 대해

생각해 볼 때입니다.”

도시라는 만만찮은 상대와 맞선 만큼, 그는 냉소와 오기의 자세를 잃지 않는다. 간간히 유머를 던지지만, 그것 역시 방심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일 뿐이다. 인물의 감정도 극도로 절제한다. ‘근친효과’를 완전히 배제해 버린 인물들은 소설 속에서 의미체가 아닌 하나의 기호일 뿐이다.

“대개의 작품이 그렇고 보니 팽팽한 긴장이 엄려스러웠던가 봐요. 주변에서 편안한 성장소설을 써보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소설적 주제에 대한 욕심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신경을 곤두세워 집필하는데, 고단하지만 쉽게 자세를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는 최근 장편을 구상중에 있다. 장편 집필 전 숨을 고르기 위해 동화를 한 편 쓸 계획을 갖고 있는데, 판타지가 가미된 ‘엄마 구출작전’의 내용이 될 것이라 귀뜸한다. 소설 속에 자신들의 이야기가 없다고 투덜대는 두 딸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아 그는 벌써부터 흐뭇하다.

“관심받는 작가라고 몇몇 분들이 추켜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보다 소위 잘 나가는 작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 작품을 좋아하는 몇몇 시인들이 있는데, 내면에 빠져 드는 공중병이 없어서 좋다고 하더군요. 거기엔 공감합니다. 이번 장편은 밤과 낮, 성과 속, 현실과 환영이 뒤범벅된 특별한 텍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냉소와 오기가 충만한 소설. 콤플렉스가 발현되는 공간이 소설이라 단정한다면, 그는 참 따뜻한 작가다. 그러나 콤플렉스 발현을 운운치 않더라도 기자가 만난 그는 따뜻한 작가였다. 폭압적인 도시

《날마다 축제》

강영숙 지음 | 창비 | 236쪽 | 값 8,500원



에 상처 입은 소설 속 인물들에게 냉담한 듯 하지만, 인과이터 복서의 자세를 견지하며 도시를 향해 멋지게 한 방을 노리는 그만의 냉소와 오기, 그것은 ‘치독한 연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창비**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